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 지자체 참여의 장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탈춤 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지자체 신청 이어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전국 지자체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날’ 행사에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유치 활동을 시작해 강원도 영월을 시작으로 정원

에 관심 있는 전국 58개 지자체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현재까지 35개 지자체의 참여를 확정했다.

특히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탈춤’(양주 별산대놀이, 고성오광대, 사천오광대, 은율탈춤, 수영아류) 5개소와 택견, 좌수영어방놀이 등 국가무형문화재 보

유 지자체의 참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직위는 대한민국 시민의 날을 통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전 국민이 즐기는 박람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전체영 조직위 사무총장은 “동참해준 모든 지자체와 예술단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시민의 날

참여 지자체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며 “국내의 800만 명이 관람할 박람회를 통해 참가 지자체의 문화행사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국가의 날’, ‘대한민국 시민의 날’ 등 국내외 지자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공연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곡성,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레저문화센터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곡성군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곡성을 레저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제나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는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곡성군은 현재 1명의 마을세무사

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에서 호남세무법인 두암지점 대표 유권규 세무사가 세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이상석 기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광양, 우수상 수상 영예



광양시는 지난 9일 전남도가 주관한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100개(작년 45, 올해 55)의 마을이 참여해 ‘내 마을을 내일, 내 집처럼 가꾸자’는 목표로 마을의 특색을 살린 벽화 그리기, 문패 달기, 꽃밭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읍면동과 마을에서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기업과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 광양시는 우수상을 받았다.

마을 단위 평가에서도 수상 기록을 이어갔는데 광양읍 점동·호북마을, 옥곡면 명주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돼 마을별로 내년 사업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읍 점동마을은 포스코케미칼과의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정마을, 사라실에술촌과 연계해 구룡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관광지 코스를 형성할 예정이다.

광양읍 호북마을은 광양의 특산물인 매실을 벽화에 표현했으며, 주변 카페에서 개인이 직접 벽화 그리기를 진행하는 등 마을 경관을 주민이 함께 개선하고 있다.

옥곡면 명주마을은 남녀노소 모두 벽화 그리기에 참여해 마을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고, 이 사업으로 마을 회관 앞 교통사고 및 불법주차 차량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성, 민선 8기 군민중심 조직개편 단행

인구정책과·상하수도사업소 신설... 전문성·추진력 향상 기대

보성군은 민선 8기를 맞아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국을 폐지하고 인구소멸 대응, 보건·복지분야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현행 2국 1담당관 13과 2직속기관 1사업소를 1실 15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개편한다.

특히, 인구소멸 대응, 청년정책 추진 및 인구 관련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로 2개 과로 분리한다. 상하수도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생태과의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했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증가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장의 직급을 기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했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 과로 확대 개편했으며,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민원팀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 재무과 부과팀, 해양수산과 해양생태

팀, 안전건설과 중대재해예방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보건소 차매점 신팀을 신설했다.

보성군은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업무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 현행 136개 체제에서 146팀으로 관련 조직을 보강했다.

김철우 군수는 “민선 8기 역점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 및 군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며 “군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 발 앞선 소통, 두 발 빠른 행정을 내실있게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지난 11월 군의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보성=장국도 기자

구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총력

긴급복구지원반 편성·사전점검 등 주민 불편 최소화

구례군은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로 인한 주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및 대행업체 4개소로 구성된 긴급복구 지원반을 편성해 동파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용가 세대에 동파 예방을 위한 동파 예방 안내문을 고지서의 함께 동봉하여 배부하는 등 겨울철 수

도 시설 동파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파예방 수도시설 안내문에는 ▲계량기함 내부를 보온팩이나 현 옷으로 보온하기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 등으로 감싸기 ▲장기간 외출이나 한파가 지속될 경우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 흐르게 하기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기 등의 관리요령을 담고 있다.

한편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는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시 제41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섬진강 유역 수질 보전방안 공동 대응 모색



제41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9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996년 섬진강 유역 수질보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광양시에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1997년 12월 창립)를 제안해 섬진강

수계 10개 시군과 5개 유관기관 중심으로 수립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예산결산과 섬진강 유역의 지속적 수질보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포럼, 실무자 워크숍과 문화유적지 탐방, 토종어류 방류행사 등 2023년 사업을 승인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섬진강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훼손에 의한 수질 악화를 경계하고, 토종어류방류사업, 쓰레기 수거 사업,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으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생태·문화·역사적으로 중요한 섬진강을 보호하고 직면한 문제에 공동 대응해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섬진강의 본 모습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3년 사업으로 추진할 섬진강 환경포럼에서는 댐에 의한 생태계 변화, 타 수계로의 유역 변경, 하류지역의 유지 수량 부족, 연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해 전문가, 지역 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함께 문제점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섬진강 유역 지역민들이 공존할 방안을 논의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보성 ‘지방자치정책대상’ 행안부장관상

보성만의 브랜드 시책 600사업, 성과 인정받아

보성군은 지난 9일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부터 추진해온 ‘보성600사업’으로 이번 대상을 수상한 보성군은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을 시작으로 클린600, 마을복지600사업 등 3개 분야로 600사업을 확장했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강화와 지역공동체 부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채택돼 전남 22개 시군에서 ‘청정전남 으뜸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성군은 지역 특성을 담은 브랜드 시책 600사업의 추진과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진일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결과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모든 군민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보성군은 민선8기 슬로건을 ‘다시 뛰는 보성 3·6·5’로 정하고, 3대 SOC, 600사업, 5대 분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성군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 검색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1YUyYk5bCh9GpCpYQ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